

가끔 나는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곤 한다. 얼마 전에 본 내용은 아직도 뇌리에 서 떠나지 않는다. 여성 동물심리학자가 출연한 내용이다. 거기서 그녀는 이상 행동을 보인 개나 말을 만난다. 동물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잠시 침묵한다. 때론 동물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무언가를 되뇌는 모습이 있다. 이어 동물 주인과 얘기를 나눈다. 동물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저간의 속사정을 알아챈 주인은 공감을 표시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한다. 며칠 지나, 눈에 띄게 달라진 동물의 행동 변화가 주목된다. 시청자들도 충분히 이에 따른 공명 반응을 갖게 된다. 그녀의 뒷말은 대체로 이러하다.

동물은 말로 표현 못하니 주인의 속사정이나 감정까지 알아내는 능력이 사람 못지 않다. 그리고 동물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해와 감성의 능력도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느 동물이든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인격성' 같은 게 분명 있다는 전언이다. 그녀의 사실 경험을 통해, 또 객관적 검증들을 통해 드러났으니 받아들이기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 읽은 책 기억이 또 하나 떠오른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써 일약 세계적 명사가 된 일본인 학자 에모토 마사루의 메시지다. 그의 연구는 가히 충격적이다. 알다시피 생명의식이 없어 보이는 물(水)이라는 물질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는 사람,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큰사랑노인병원장

**순수의식과 정신건강**

미움 등 여러 감정을 말로 또는 물병위에 글로 써놓고 그 전후의 물 분자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사랑 등 긍정적 감정을 드러내주면 물은 아름답고 신기한 결정체 구조가 된다. 반면 악감정에 노출되면 물분자는 기괴한 모양으로 변하고 만다. 물과 같은 무생물일지라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셈이다. 허나 그 신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은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 Nature>에 투고된 바 있다. 당시 게재된 논문에 대해 편집자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실점이다. 물리학적 근거가 없다"는 코멘트를 말미에 달아 놓기도 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의 의식 반응 같은 걸 밝혀 낸 방송보도를 본 생각이

난다.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스런 보살핌의 손길이 닿으면 마치 의식이 있는 양 생육도 좋아지고 그 열매도 잘 맺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실 재배에서 이렇듯 사람 대 하듯 식물을 키우는 이가 있다는 소식을 가끔 아침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동물은 물론 식물, 심지어 물과 같은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일체 만물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불가(佛家)의 얘기도 형이상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우리의(인간중심) 마음 바탕엔 만물 공통의 근원인 그와 같은 '순수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말한 순수의식이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수준의 의식

즉, 의식·전의식·무의식이란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런 류의 의식을 떠난, 의식의 바탕이 되는 의식이다. 해서 일컫어 순수의식이라 지칭된 것이다.

인도의 옛 성자였던 마하리쉬나 마하리쉬,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이들도 이런 의식을 두고 우리의 본래 고향이나 근본 바탕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부연하면, 순수의식은 우주 의식과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에고(ego)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의 희미한 부산물 쪼름으로 간주된다. 개체 영혼이라는 것은 이 에고와 순수의식의 중간쯤일 것이다. 순수의식은 빛과 사랑 또는 자비로 넘쳐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늘 침묵해 휩싸여 빛나는 이 순수의식을 참고 해 보면, 이 우주가 본래부터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설명은 모든 류의 명상(또는 명상적 치유)에서 공유하고 있다. 나는 회복기의 일별증독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대 할 때 중국에는 이런 의미 관련 명상법을 소개해 준다. 의외로 그 반응이나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다. 정신건강의 증진에는 어떤 치료방식을 따르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제고 없이는 궁극적 해결도 없을 거란 게 내 소견이다. 자살과 우울증 예방 교육을 할 때에 의식의 참다운 변화를 겪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훌륭한 방책이라 믿어야 되지 않을까 본다.

**사설**

**10·27법난연구소 설립해야 한다**

10·27법난은 한국불교사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후 어언 30년이 흘렀다. 80년 10월27일 새벽 3만2천여 군·경이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 들이닥쳐 1920명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연행, 고문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에게 강제로 사표를 쓰게 했고, 종도들의 대의기관인 중앙총회를 해산시킨 후 정화총회회의를 만들었다. 한 종단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없이 유린한 것이다.

2007년에 와서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10·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됐던 불교계가 다소나마 억울함을 털었다. 여기까지 27년이 걸렸다. 법난 진실 규명을 촉구했던 민중불교운동연합, 실천불교전국승

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단체와 성해 스님, 삼보 스님 등 피해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과거 사위원회의 권고는 없었을 것이다. 3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린다. 기념법회를 병행하고, 세미나를 열고, 연극도 공연한다. 조계사 인근에 10·27법난 역사교육관을 건립하는 불사도 추진된다. 그러나 개운치 않다. 10·27법난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 의해, 왜 불교계를 정화의 대상으로 지목했는지, 진행 경과는 어떠한지, 아직도 공백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법난연구소 설립하자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 "미진한, 애매한, 부족한 자료수집이라는 현실에서의 역사해석, 의미 부여, 교훈과 과제 찾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흘러들을 말이 아니다.

**계율도량은 한국불교 위한 장군죽비**

계율근본도량이 설치된다. 계율(戒律) 정신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고 율을 연구, 보급해 생활 속에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중앙연구회 회장 철우 스님과 고령 반통사 주지 도일 스님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통사를 계율근본도량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불교의 계율이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계율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도일 스님은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를 제외한 이보만 있으면 주장한 이도 있을 만큼 율장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계율근본도량이 설치된다니 온 사부대중이 반길 일이다.

현대한국불교사의 여러 분구의 원인은 종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계를 지키지 못한 허물을 드러내어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기 일쑤였다. 계율근본도량이 나오지 계율 정신에 따라 따른 자상하게 타이르고, 때론 장군죽비가 되어 우리 불교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불교에는 일찍이 서릿발 같은 계율전통이 있다. 자장 율사는 재상을 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는 용맹을 받고 "내 차라리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고사했다. 우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폭등해 전국이 난리이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태풍재난,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칠레 산호세 광부들이 보여준 동료애와 화합에서 알 수 있듯 우리들은 많은 재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또 다른 큰 감동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몇 달을 암흑 속에서 견디며 극복해 보여준 그들의 결실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다.

나는 희망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마다 한해 계획을 세우며 발원을 한다. 올해에는 건강기도와 참회기도를 계획으로 삼아 실천 중이다. 올 한해 동안 참회서원은 일상 속에서 빠지지 않는 나의 화두였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발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천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농부에 비유해 보자. 먼저 봄에 밭을 갈아 돌팽이를 갈아내어 고르게 땅을 평평하게 해 양질의 발을 만들어야한다.(如淨良田) 다음으로 씨를 뿌려서 곡식이 생길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如下種子) 물도 뿌려서 곡식을 잘 가꾸어 자라게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거름을 주어서 다 자란 식물을 잘 수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불교인의 기본 자세는 '양질의 발(如淨良田)'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부대중 칼럼**

김은희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참회와 얹이 중요한 까닭**

지금 자신의 모습이 깨달음의 목표에 근접할 만큼 정진이 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자기반성의 자세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매순간 자기마음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은 발을 만드는 비결이라 생각된다.

송나라 자운존식(慈雲遵式, 963-1032) 스님은 <왕생정도결의행원이론(往生淨土法疑行願二門)>에서 일상생활 속 염불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을 다잡아 자연히 항상 모든 악의 생각을 멀리한다. 설명 악을 짓고자 해도 부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사 악에 따라 악업을 짓고자 할 때 마음이 항상 하심하고 부드러워 마치 몸이 향기가 있어서 자연히 다른 냄새가 떠날 것과 같다. 또한 다시 마음에 미세하게라도

악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안 즉시 곧 부처를 기억한다면 악한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스님은 삶 속에서 부처를 생각해 악한 생각을 떨리하는 것도 일상생활 속의 '염불인'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왕생정토참원의(往生淨土懺願儀)>의 참회문에서 "지금 내가 악을 지으면 3악도에 떨어지니 원컨대 가엾이 여기서 저의 참회를 받고 무거운 죄가 멸해 모든 악이 사라지고 마침내 사바에 태어날 원인이 영원히 다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참회의 실천을 강조했다.

가을이 무르익는 지금, 내 수행의 결실을 살피고 다시 나를 점검해본다. 매순간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하고 나를 채찍 하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정정해졌다. 부처님

은 항상 우리를 비디오카메라로 찍듯이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기록하고 알고 있다는 어느 큰 스님의 말을 기억하며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조심했다.

마음이란 화기와 같아서 항상 오음(五陰)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금세 악한 습기가 생겨나서 내 정신을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만드는 경험들은 누구나 겪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주위에서 내 얼굴이 밝고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 참회를 하면 알지 못했던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몇 번 씩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 무지(無知)가 큰 죄라고 여기는 것도 이 이유에서이다. 모르면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므로 잘못된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깨닫고 되면 잘못을 뉘우치면서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이다. '얹'이 중요한 것도 이 까닭이다.

나를 비롯한 불자 모두가 올 한해 세운 목표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그것들이 결실을 이루려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마음속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의사총원본담덕실시간 뉴스 토틀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평원 원본담덕실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풀이된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일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르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손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거만 하면 통증이 온 것이라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팔꿈치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 발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르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손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거만 하면 통증이 온 것이라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팔꿈치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 발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 발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유효성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면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유효성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면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